



동화사 백고좌법회 대구지역 불자들의 관심 고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8월23일 하안거 해제 및 백중을 겸한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법회에는 3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뜨거운 발심의 자리가 됐다.

동화사 백고좌법회 연일 성황

“원로대덕 큰스님 법문 들을 좋은 기회”

대구시민 큰호응...평일에도 7백~1천명

요즘 대구지역 불자들은 오전엔 다른 약속을 하지 않는다. 8월20일부터 시작된 동화사 백고좌 법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통일과 교통안전 기원' 등을

목적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열리는 동화사 백고좌 법회는 평일에도 7백~1천여명의 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어 감로 법문에 목마른 지역불자들의 큰 호

응을 받고 있다.

8월 23일, 하안거 해제일에도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의 백고좌법회가 봉행됐다. 하안거 해제와 백중 법문을 겸한 이날 법회에서 진제스님은 "부처님의 법인 해탈법을 불자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꾸준한 법문 습득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의 참다운 나를 찾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을 경

주해야 할 것"이라고 설했다.

이날 법당 밖까지 자리를 빼곡히 메운 참가자들은 막바지 무더위 속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에도 아랑곳 않으며 스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법문을 경청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백고좌법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보현행보살52 대구달서구는 "이렇게 한자리에서 원로대덕 큰스님들의 법문을 모두 들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나"며 "백고좌 마지막날 법회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싶다"고 말했다.

매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동화사 백고좌 법회는 계속해서 7일 압도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12일 성수스님(법수선원 조실), 23일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 30일 성타스님(불국사 회주), 10월3일 링 린포제, 10월6일 보성스님(동화사 부방장), 10월23일 도문스님(대각사 조실) 등으로 이어져 10월 27일 진제스님의 회향법문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와함께 동화사는 2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교통안전 기원을 위한 전단과 단주 등을 나누어주는 거리 캠페인을 벌이며 30일까지 교통안전 표어 및 수기를 공모, 각종 상장과 상패를 수여한다. ☎053982-0101 대구=박원구 기자

고등학교 국어·철학·사회문화 과목 교과서 불교관련내용 오류·편향 조사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실린 불교관련 내용이 전부 분석된다.

파라미터청소년학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소장 김형중)는 9월 9일 오후6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월례세미나를 열고, 지난 6월 1일 발표한 '제7차 교육과정 초·중·고 교과서 불교교리 오류 및 종교편향성 분석'에서 다루지 못했던 고등학교 국어, 철학, 사회문화 과목의 불교관련 내용분석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명성여고 김형중 교장을 비롯해 이병철, 문진환 교사 등이 고등학교 철학, 국어, 사회

문화 교과서에 실린 불교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청소년문화연구소 김형중 소장은 "빠르면 9월 중순까지 지난번에 분석한 내용과 함께 자료집으로 묶어 낼 계획"이라며 "조계종 총무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교과서 개정에도 불교관련 기술 오류와 종교편향 사례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차 세미나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도덕·국어·국사 수학,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중 교편사를 비롯해 이병철, 문진환 교사 등이 고등학교 철학, 국어, 사회

문화 교과서에 실린 불교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향 7항목 등 총 19항목의 문제가 지적됐다. 김철우 기자

해인사 남굴추모관 개관

고양 미타원서 13일 법회

합천 해인사 부설 남굴추모관 개원식이 13일 오전 11시 고양시 대자동 미타원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을 비롯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이날 개원식은 개원대법회와 함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서명식,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조선·중앙·굿데이紙 불교비하내용 만화계재

조계종, 공식사과 요구

조선일보, 중앙일보, 굿데이가 8월 29일 일제히 불교비하 만화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총무원장이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일보는 29일 1면 '김성택의 만화세상'에 '마지막 후보'라는 제하의 만화에서 현재의 총리선출문제와 관련하여 조계종 총무원장을 회화했다.

조선일보도 A2면 '신경무 조선만화'에 '떨어서 먼저 안나는 사람' 찾

아라'라는 제하로 실린 만화 내용에 종교인들을 회화했으며, 굿데이는 23면 '비어스' 만화에서 우리 사회의 정신적 보루인 불교의 수행자를 등장시켜 불교를 폄하하고 수행자로서의 이미지를 왜곡시켰다. 김원우 기자

“전쟁·재앙 해결위해 불교 적극 동참해야”

그래엄 호주불교협회장 강연



호주불교 연합회장인 라이얼 그래엄(左) 초청 강연회가 불교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8월 28일과 31일 광주와 서울에서 각각 열렸다. 광주·전남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기형) 주최로 조선대 치과대

학 대강당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그래엄은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와 사상은 한 울타리 속에서 서로의 존재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와 생각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 전쟁과 같은 고통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불교대회 집행위원이기도 한 그래엄은 퀘즐랜드 정도 불교협회장, 세계종교인평화회의 회장 등을 역임했고 세계평화국제 불교협력회의, 국제종교협력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북한산관통도로 노선조사위 4일 인선완료

10일 첫 회의...운영방법등 논의

불교계의 건설회사가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조사위원회 인선 및 구성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고 10일 첫 회의를 갖는다.

조계종 공동대책위는 "서울고속도로 관계자와 만나 노선조사위 구성 인원과 향후 일정 등에 합의했다"며 "4일까지 20여명으로 노선조사위 인

선을 마치고, 10일 첫 만남을 통해 노선조사위 운영 방법과 재정 총당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하는 노선조사위는 불교계가 추천한 8명, 정부 및 건설회사가 추천한 8명, 관할 지자체인 서울과 경기도가 추천하는 각 2-3명 등 총 20

여명으로 구성되며, 불교계는 환경관련 전문가, 불교계 인사,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시킬 계획이다.

조계종 공동대위 김용구 간사는 "노선조사위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공사 중단 문제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수재민돕기 모금운동

조계·천태종 등

조계종은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지만 모금액이 예년의 반에도 못 미치는 등 수해민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6일까지 범종단차원에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을 비롯

한 각계 종교지도자들은 8월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재의연금 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문의전화 02735-5864. 계좌번호(국민은행)023-25-0011-991 예금주:(재)불교중앙교연.

천태종도 판문사, 삼광사, 정광사, 광수사 등 전국 각 말사에서 모은 성금 5,400여만원을 수재의연금으로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석굴암 유물전시관 논란 재연

이달중 문화재위원회서 위치 등 재심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을 둘러싼 학계의 논란이 재개될 조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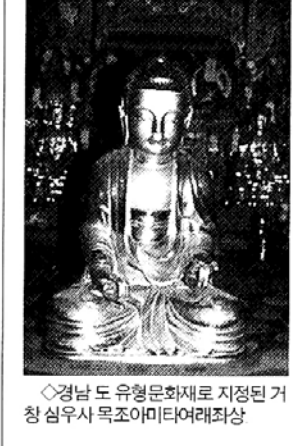
경주시는 불국사가 제출한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설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근 문화재청으로 넘겼다고 8월 30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빠르면 9월중 문화재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유물전시관의

건립 위치 등에 대해 재심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해 10월 건조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석굴암에서 동남쪽으로 100여m 떨어진 곳에 본존불 모형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역사유물전시관을 짓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4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계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현 위치에 역사유물전시관을 짓는 것은 석굴암 경관 훼손"이라는 반대에 부딪혀왔다. '석굴암 토함산 훼손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상재 교수(성균관대)는 "모형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 위치에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불국사가 최근 경주시에 제출한 설계안은 당초 계획대로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 문화재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형진 기자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심우사 여래좌상등 7점 도문화재 지정

경남도는 최근 도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산청 울곡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통도사 창녕포교당 목조석가여래좌상, 양산 통도사 감로탱 현왕탱 등 7점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또 산청 정취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양산 통도사 사명암 감로탱, 심우사 삼장탱화 등 3점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했다. 김원우 기자

그린벨트내 사찰 2배증축 가능

관련법적용 건물면적 기준으로 변경돼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증축면적이 2배까지 확대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구기종 금선사는 8월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사찰의 면적을 기준으로 증축가능 면적을 상향토록 했던 법해석이 별도의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독립된 대지내의 건축물단위로 면적을 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증축면적이 2배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이 개발제한구

역 지정(76년) 이전부터 독립된 대지에 입지하고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서 별도의 건축물 대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연면적 150㎡(50평) 미만은 300㎡(100평)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금선사 주지 법안스님은 "그린벨트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여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사찰의 시설을 증축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중단과 협조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당신의 전생을 보여드립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 최면전생 특강 내용**
- (1) 최면으로 하는 재경 천도(天道)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歌)나 빙의령(靈依靈)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2) 전생도행 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 (3) 원격 제령 최면 - 제 3자가 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최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 (4) 최면 파동요법 - 사람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歌)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법운 선생님 약력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동래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세계 이미지포 기공협회 회장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